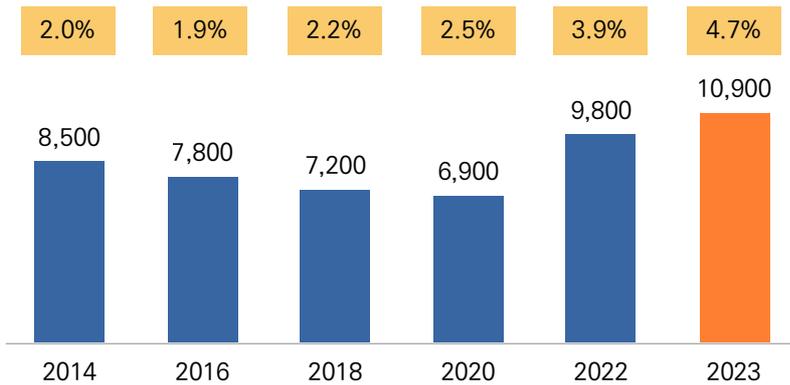




[비혼 출산 실태 및 인식] 작년 '비혼 출생', 신생아 20명 중 1명꼴!

- 최근 배우 정우성의 혼인 외 출생아(혼외자) 소식으로 인해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 비혼 출생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비혼 출산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떤지 살펴본다.
- 통계청의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비혼 출생아 수는 2014년 8천 500명에서 이후 등락을 보이다가 2023년 1만 900명으로 첫 1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출생아 중 비혼 출생 비율은 2023년 4.7%로 신생아 20명 중 1명이 혼인 외 출생아인 셈이다.

[그림] 비혼 출생아 수 및 비중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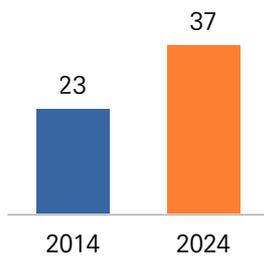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출생 통계, 2024.08.28.

우리 국민 10명 중 4명가량(37%), 비혼 출산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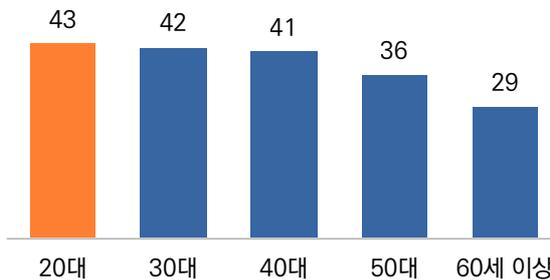
- 이번에는 13세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비혼 출산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2024년 37%로 10년 전 23% 대비 크게 높아졌고, 연령별로 보면 20~40대까지는 10명 중 4명 이상이 '비혼 출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비혼 출산에 대한 의견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동의율*, %)



[그림] 연령별 비혼 출산에 대한 의견*

(2024,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동의율**,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각 해당 연도(2014, 2024년) 사회조사

*13~19세는 제외

**4점 척도

OECD 평균 비혼 출산률 41.9%...한국(4.7%)은 꼴지에서 두 번째!

- OECD국가의 비혼 출산 비율은 어떻게? 2020년 기준 OECD 평균 비혼 출산률은 41.9%였고, 37개국 중 비혼 출산이 50%가 넘는 국가는 13개국으로 1/3수준에 달했다. '칠레'가 75.1%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5위) 62.2%, '미국'(22위) 40.5%로 조사됐다. '한국'(36위)은 4.7%로 꼴지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고, '일본'(37위)이 2.4%로 OECD국 중 비혼 출산률이 가장 낮았다.

[표] OECD국 비혼 출산 비율 (2020년 기준*, %)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1. 칠레	75.1	14. 영국	49.0	26. 이탈리아	33.8
2. 코스타리카	72.5	15. 체코	48.5	27. 독일	33.1
3. 멕시코	70.4	16. 뉴질랜드	48.3	28. 캐나다	32.7
4. 아이슬란드	69.4	17. 스페인	47.6	29. 헝가리	30.4
5. 프랑스	62.2	18. 핀란드	46.1	30. 스위스	27.7
6. 노르웨이	58.5	OECD 평균	41.9	31. 리투아니아	27.0
7. 포르투갈	57.9	19. 룩셈부르크	41.6	32. 폴란드	26.4
8. 슬로베니아	56.5	20. 오스트리아	41.2	33. 그리스	13.8
9. 스웨덴	55.2	21. 슬로바키아	40.7	34. 이스라엘	8.1
10. 덴마크	54.2	22. 미국	40.5	35. 튀르키예	2.8
11. 에스토니아	53.7	23. 라트비아	39.5	36. 한국	4.7
12. 네덜란드	53.5	24. 아일랜드	38.4	37. 일본	2.4
13. 벨기에	52.4	25. 호주	36.5		

※출처 : OECD, OECD Family Database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한국은 2023년 기준, 콜롬비아를 제외한 37개국 대상임